

영화관·카페 곳곳에 '책 꾸러미' 설치

고창군, '한국지역도서전' 앞두고

최근 고창군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쉽고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책의 도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2019고창한국지역도서전'을 앞두고 고창읍내 곳곳에 인문서가가 설치됐다. 인문서가는 '지금 여기, 책이 피어나요'를 주제로 모두 50여권의 전국 지역 출판서적과 고창 콘텐츠를 담은 책,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책 꾸러미로 마련됐다.

책장은 고창읍성 앞 동리시네마를 시작으로 고창 초등학교와 고창교육지원청 인근 르시엘블루, 군청 앞 로터리 단킨도너츠를 거쳐 지정환피자, 고창터미널 인근 할리스커피와 풍기류등 6곳에 놓였다.

군은 영화관람을 기다리거나,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책읽기와 한걸 가까워지도록 했다. 고창군과 책마을 해리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이용 시설을 각각의 빛깔에 맞는 책으로 구성해 좀 더 촘촘하게 책거리를 채워갈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책거리는 인문학 중심 도시 고창군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고창의 다양한 주민 이용시설이 생활 속 인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2019고창한국지역도서전'을 앞두고 고창읍내 곳곳에 인문서가가 설치됐다.

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9일부터 나흘동안 고창 책마을해리 일원에서 열리는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은 '지역에 살

다 책에 산다'를 주제로 살림의 지역생태계, 살아나는 지역 출판생태계를 화두로 전국 50여개 지역 출판사가 참여해 열린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높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촌기업 등과 협약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운애)는 24일 여성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한 여성친화일촌기업 및 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 체결했다.

여성친화일촌기업이란 새로이 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속한 기업체로서 새로이 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도지부, 비전재가복지센터, 대주코스(주) 등 18개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서를 교환함으로써 여성 친화

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기업은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의 우선 연계는 물론 새일여성터, 기업 환경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날 전주고용센터에서 고용정보 및 지원정책 설명회와 함께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안내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 여성인력 육성을 통해 기업체와 원활한 구인·구직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친화일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전라북도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동아리 미용천사, 꿈드래 합동결혼식 지원 활동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미용건강과 유학생반 2학년으로 구성된 지원봉사 동아리 미용천사는 24일 엔터 컨벤션 웨딩홀에서 진행된 '제20회 꿈드래 장애인 협회 합동결혼식' 지원 활동을 펼쳐 결혼식 대상자 및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날 미용천사 동아리 회원들은 화과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새벽부터 전북 시·군지역에서 참가한 12쌍의 낮객이 신랑신부의 웨딩 업스타일과 메이크업 도우미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신랑신부의 결혼식 진행 도우미 역할도 자청했다.

미용천사들 동아리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창원(미안미)은 "처음에는 우리 실력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화장과 머리를 해주는 우리들에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주셔서 기쁘게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보면서 눈물이 날만큼 감동이 되었습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미용천사는 학교 및 다양한 단체들의 지원과 후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재능을 사회에 나눔으로 선순환적인 나눔 문화 인식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8년 유학생반 신설과 함께 설립됐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 영농폐기물 일제수거 나서

군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토양오염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에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임순옥)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농촌지역 전역에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에 나서 폐비닐 농약병 등 30.5톤을 수거했다. 특히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14년째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에 나서 그동안 550톤의 영농폐기물을 자원화했으며 조성된 기금을 장학금 전달, 여르신 효잔치 등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 영농폐기물 일제수거는 농촌마을에 방치되어 토양오염과 미관저해는 물론 소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 도내 청소년 쉼터와 '서비스러닝 활성화' 협약

전주대학교 LINC+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은 지난 23일 전북지역 4곳의 청소년 쉼터와 '서비스러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은 전공학습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통하여 지역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 한동욱 단장,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센터 이성운 소장,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센터 오욱경 소장, 전주푸른여자간기청소년센터 정진해 소장, 전주한울안남자간기청소년센터 김경진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및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서비스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봉사활동 지원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학기 서비스러닝은 참여 학생들이 해당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창하여 '드론 교육', '가상 현실 체험', '로봇 로봇을 이용한 코딩 기초', '기초 3D 프린팅' 등의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상전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진안군 상전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회장 원덕희)는 지난 23일 용담호 상류지역인 월포리 금지마을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금지마을 주변 쓰레기 등을 수거했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쓰레기 3NO운동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상전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매년 용담댐 상류지역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치고 있어 용담호 1급수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북 제일고 핸드볼팀,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전북 제일고등학교 핸드볼팀이 다시한번 전국대회를 석권했다. 24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제일고 핸드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승으로 제일고 핸드볼팀은 5년 연속 중별선수권대회를 제패하게 됐고 남고부 핸드볼 최강팀임을 재차 증명했다.

제일고 핸드볼팀은 결승전에서 전통의 강호인 정석항공고를 상대로 26대19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는 강준구(3년)가 선정됐고, 박종하 감독과 홍상우 코치가 지도상을 받았다.

제일고 핸드볼팀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한다는 각오다.

한편 전북 제일고는 최근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펜싱팀에 이어 핸드볼팀도 승리를 거두면서 겹경사를 맞았다. /장은성 기자

익산경찰, 교통안전 협의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익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 시청 등 도로관리기관과 교통안전관련 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15개 단체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민대표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공유를 통해 한층 더 심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데 한목소리를 냈고, 교통안전 사책에 대한 개발과 진행에 대한 상호협력과 추진 사책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익산=정인천 기자



남원경찰, 교통안전교육 '엄마 손 캠페인' 진행

남원경찰서는 24일 노암초등학교 저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방어보행 3원칙을 적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엄마 손 캠페인'을 진행했다.

엄마손 캠페인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어린이들이 엄마손 피켓(노란색 손 모양 피켓)을 운전자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손에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이동센터연합회,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 협력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2층 소회의실에서 장수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장 박영자)와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동체 치안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 지원 등 상호협력력을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소방서, 사회적 약자의 소방안전교육 운영

고창소방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소방안전교육 기회 및 체험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운영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계층별 맞춤형 학습계획 ▲실습체험도구 활용 교육 ▲지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여성화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중점 교육을 운영한다.

위험요소, 위험환경, 위험행동 등 위험인지를 통한 사고사태를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대처를 위한 생존방법을 터득하도록 실습체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각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수화가 가능하거나 다국어 문화 가정을 위해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읍·면 교육대상자는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063-560-124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로 여성,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사 내방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